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통권 제 158호 발행일 : 2006년 1월 15일

2006년 교회표어 :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을 관련사항은 김현령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ontesta@nate.com

중등2부 신설과 청소년 연합예배

청소년부가 개편되었다. 중학교 1,2학년은 중등1부, 중학교3학년은 중등2부로 세분화 되어 각각 소예배실과 초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교회 학교		
예 배	시 간	장 소
썩트네(7세이하)	주일 오전 9:30	유아부실(1층)
영아부(3세이하)	주일 오전 11:30	영아부실(지하)
유아부(4-5세)	주일 오전 11:30	유아부실(1층)
유치부(6-7세)	주일 오전 11:30	유치부실(지하)
레인보우(초1-6학년)	주일 오전 9:30	유년부실(1층)
유년부(초1-2학년)	주일 오전 11:30	유년부실(1층)
초등부(초3-4학년)	주일 오전 11:30	초등부실(3층)
소년부(초5-6학년)	주일 오전 11:30	소년부실(3층)
중 등 1 부	주일 오전 9:30	소예배실(1층)
중 등 2 부	주일 오전 9:30	초등부실(3층)
고 등 부	주일 오전 9:30	중예배실(지하)
A w a n a	토요일 오후 3:00,4:00	소년부실(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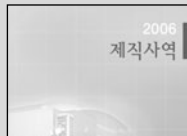
올해부터 주님의교회 청소년부가 세 부서로 늘어났다. 중학교 1-2학년이 예배드리는 중등1부, 중학교 3학년만의 중등2부, 그리고 고등부로 나뉘어 졌다. 부서를 세분화한 이유는 중등부 경우, 예배참석인원의 증가로 소예배실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등1부는 기존대로 소예배실에서, 그리고 중학교 3학년으로 구성된 중등2부는 3층 초

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또한 매달 둘째 주일에는 '청소년 연합예배'로 중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지난 주일 중강당을 가득 메운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청소년사역의 부흥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홍민기 목사는 전한다. 교육전담하고 있는 홍목사는 믿음에 대해 설교하며 믿음의 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며 믿음의 대상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

야 한다고 전하며 청소년들을 도전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후 예배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었다. 이와 같은 부흥의 소식은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는 주님의교회의 아름다운 결실이라 하겠다. (사진 설명 : 2005년 여름 "사랑해 지선아"의 이지선씨를 초청해 중고등부가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다.)

[2006재직사역] 발간

2면



2006년 예배 및 목회일정, 제직명단 등이 실린 소책자가 만들어졌다.

30CUP예배

3면



오늘 오후 4시 찬양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있다.

청소년 연합수련회

3면

중국선교 보고

4면

청년부 특별새벽기도회

2면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위한 4부예배



4부 예배 '오늘'은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소중한 도구이자

예배 그 자체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저 하지 마시고 '오늘'로 초대하십시오. 4부 예배 '오늘'은 저들이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썰렁하다는 편견은 버려!

전도 예배 "오늘"은 이번 주부터 3주간 「하나님이 썰렁하다는 편견은 버려!」라는 주제로 테마 예배를 드린다. 이번 주 제목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내겐 너무 거북한 교회"이다. 특별히 교회와 예배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과 오해를 풀어주고 "오늘"을 통해 평생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획된 예배이다. 4부 예배, "오늘"은 무엇보다 성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참여할 때 "오늘"이 진정, 믿음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장이 되는 전도예배로 자리 잡아 갈 것이다.

수요예배, 뚝딱강해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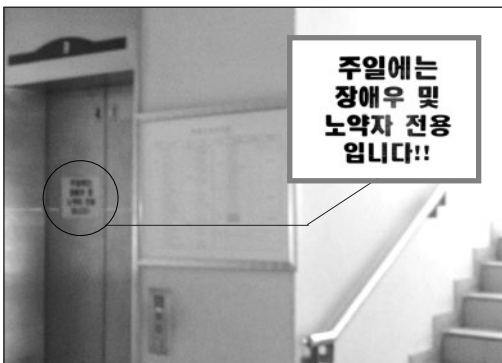
1월 11일 수요예배에서 "마라가 나오미로!", 담임목사의 뚝딱 강해가 시작되었다. 문동학목사는 불확실하게 시작 하는 200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지혜의 성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또한 성경적으로 인간의 깊이를 다루고 문학적으로 인

간의 길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위해 구약성경 뚝딱을 3개월에 걸쳐 강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강해 설교는 혼란과 흥년이라는 정치적 자연적 재해 속에서, 버림 받은 사람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문학적, 실존적, 인간적으로 해석해 나감으로 성경을 읽는 즐거움과 기쁨을 더하게 될 것이다.

주일, 엘리베이터는 장애인과 노약자 우선

교회 중앙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2층을 통해서는 대예배실로 연결이 가능하

다. 그러나 주일 5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함께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주일, 엘리베이터는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성도들의 양보와 협조가 필요하다.



중보기도사역팀 월례회

'말씀을 듣고 결실하여 백배가 되느니라'(마3:23)

새해가 들어 오랜만에 포근한 날씨다. 1월12일 오전 10시 유치부실에는 반갑고 해맑은 미소가 번져가는 40여명의 기도일꾼이 모여서 새해 인사를 나누고 뜨겁게 찬양을 시작했다. 정영환 목사의 인도로 호산나를 한 목소리로 부르며 마음 문을 열었다. 이어 정목사는 마태복음 13:3~8, 18~23의 말씀으로 설교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수고의 대가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천국의 언약이며 본문에서 비유된 씨앗은 하늘나라의 말씀이라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과 감사로 열심을 갖고 기도하

자고 했다.

2006년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주제성구 마태복음 3장 23절 '말씀을 듣고 결실하여 백배가 되느니라'이다. 사역팀원들은 이 말씀을 기초로 소그룹에 집중하는 2006년, 부흥에 집중하는 2006년이 되기를 다짐했다. 말씀 후 사역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주님의교회, 길가의교회, 백주년 기념교회 등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며 사역자 자신들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기도하였다.

월례회에서는 그동안 수고하여온 전은숙부장권사

와 김선희 총무를 이어 김형기 권사가 중보기도 부장으로 안경희 집사가 총무로 결정되었다.

기도에 주세요		카드번호 :
기도신청자	전화	E-mail
기도대상자	기도내용	
신청자와의 관계		
나이		
성별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입니까?		
예 ☐ 아니요 ☐		
교회적으로 공개 ☐ 비공개 ☐		
작성일자	년 월 일	주님의교회 중보기도실

교회 엘리베이터 앞에는 중보기도함이 있고 중보기도신청 및 응답카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2005년까지의 기도카드는 937장이 들어왔고 응답카드도 100여장이 들어 왔다.

청년특별새벽기도회

기도하는 80여명의 청년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
그리고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한 집사를 만날 수 있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15분에서 중예배실에서 열리고 있는 청년새벽부흥기도회는 지난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둘째 주까지, 3주간의 특별새벽기도회기간을 가지며 뜨겁게 예배하고 있다. 이상호전도사와 청년들의 찬양인도로 시작하는 새벽기도회는 고요한 아침을 건너버리고, 매일 새로 태어나는 힘찬 새벽아침을 열고 있다.

청년새벽부흥기도회에 참여하면 기도하는 80여명의 청년들, 그들의 손을 잡고 다시 기도하는 윤은성목사와 그리고 매일 아침 청년들의 식사를 혼자서 준비하는 정란희 집사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할 수 있다.

다음은 윤은성 목사의 이번 주 말씀을 요약한 것이다.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 6가지 열정, 인내, 성실, 도전, 관계, 순종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는 말씀처럼 인생에 있어서 피와 땀과 눈물로 행함이 있는가에 대해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정'으로 행하고 있는가는 다음의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첫째, 그 일을 생각하면 설레는가? 둘째, 그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셋째, 그 일을 하면 에너지가 오히려 더 솟아나는가?

넷째, 그 일의 결과에 최선을 다했다는 자신감이 있는가?

다섯째, 주변사람들이 당신에게 열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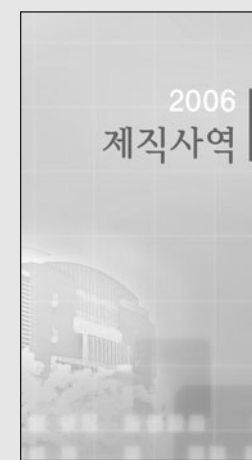
이러한 열정이 있는 자들은 난관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처럼 인내의 끝은 약속 이루심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이루고 난 후의 감격을 맛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듯 우리들도 주의 '성실'을 배워야 한다. 영적충만은 바로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찾아온다. 비전의 성숙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실이 필요하다. 때문에 우리는 작은 시간이라도 성실하게 보내야 한다. 우리의 영적 성실함은 사람을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만든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되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도전'해야 한다. 어떤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섬김에서 나온다. 우리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생기는 두려움을 성경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도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 하나 하나에 다시 도전할 때 조금씩 믿음의 용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 밖에도 그리스도인의 '비전의 확장'인 '관계'와 '비전의 완성'을 이루는 '순종'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청년들은 이처럼 특별새벽기도회의 마지막 주간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있어서 필요한 6가지 요소를 새벽마다 한 가지씩 배워가면서 주 앞에서 다시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태어나고자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2006 제직 사역] 발간



2006년 예배 및 목회 일정과 제직 명단이 실린 [2006 제직사역]이 소책자로 발간되었다.

올해는 성도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함께 기재했던 교회요람을 따로 발간하지 않고 이 소책자를 [2005년 교회요람]과 함께 사용하도록 제작되었다.

[2006 제직사역]은 대예배실 입구 및 로비에서 가져 갈 수 있으며 제직사역조직과 교구/구역 조직, 제직 명단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아버지학교에 초대합니다

동부21기 아버지학교, 기도모임을 시작

2006년 새해를 시작하며 동부21기 아버지학교 기도모임이 지난 주 1월10일 3층 소년부실에서 있었다. 약 25명의 아버지학교 스태프들이 새해 첫 아버지학교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바라며 형제간의 허깅과 소개시간을 가졌다.

2006년 아버지학교의 비전은 '아버지여 순결 하십시오!'이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순결하기 힘든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아버지 학교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 운동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 놓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준비한다.

이미 기도 모임이 진행 중에 있으며 19일부터는 목요일 저녁 7시에 소년부실에서 기도모임을 갖게 된다.

동부 21 기 <아버지학교>

- 1)기간 : 2월 12일 (주일) 오후4시 - 3월 12일까지 (5주간)
- 2)장소 : 주님의교회 소년부실
- 3)신청방법 : 조선연집사 (017-747-1233), 김중호집사 (018-355-2807)

30CUP을 보여드립니다.



30CUP은 2005년 4월 주님의교회에서 시작된 30대 사역의 이름이다. 30은 30대를 의미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Unreached People)에게 다가가셨던 시기를 상징하는 숫자이다. CUP은 Caring for Unreached People의 약자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다가서고자 하는 사역의 모토이며 막9:41과 같이 이웃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물 한 컵"을 상징한다.

30CUP은 2005년 4월 주님의교회에서 시작된 30대 사역의 이름이다. 30은 30대를 의미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Unreached People)에게 다가가셨던 시기를 상징하는 숫자이다. CUP은 Caring for Unreached People의 약자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다가서고자 하는 사역의 모토이며 막9:41과 같이 이웃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물 한 컵"을 상징한다.

30CUP은

30CUP 예배 : 매월 셋째 주 오후 4시 대예배실에서 있다. 찬양과 경배, 말씀의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예배이다.

셀연합모임 : 매주일 오후 1시 15분-2시 1층 제3집회실에서 모인다. 30대가 공감하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나눔이 있다.

셀모임 : 주중 혹은, 주일 오후에 셀별로 모임을 갖는다.

바베트만찬 : 30cup의 실천운동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구체적 소비활동이다. 30cup예배 때 모아진 바베트만찬은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된다. (클럽 : 30cup.cyworld.com)

30CUP예배

오늘 오후 4시 30CUP 예배가 있다.



오늘 드러지는 30CUP예배는 종전과 달리 어쿠스틱(Acoustic : 앰프를 사용하지 않는) 스타일의 음악예배로 드러진다. 말씀은 30cup을 담당하는 김현령 목사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까마귀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게 된다. 믿음과 실생활의 깊은 괴리를 느끼는 30대를 까마귀에 비유하여 실존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그 해결책을 성경을 통해 모색하게 된다.

오늘 드러지는 30CUP예배는 종전과 달리 어쿠스틱(Acoustic : 앰프를 사용하지 않는) 스타일의 음악예배로 드러진다. 말씀은 30cup을 담당하는 김현령 목사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까마귀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게 된다. 믿음과 실생활의 깊은 괴리를 느끼는 30대를 까마귀에 비유하여 실존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그 해결책을 성경을 통해 모색하게 된다.

오늘 기도



주께서 죽은 소녀를 붙잡아 살리신 것처럼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군세에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1월 7일 국수봉사 다시 시작



크리스마스와 신년주일로 잠시 중단되었던 국수봉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1월 7일 이른 아침 이호목사는 주방 봉사가족들과 함께 금년에도 성도들을 위해 깨끗하고 맛있는 국수를 기쁨으로 제공하

며 준비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주방부는 새벽 5시부터 음식 준비를 하고 각 교구의 구역들이 순서대로 함께 봉사한다.

주일 국수 봉사팀은 한 주에 2500명 분의 국수를 만들어 제공하고 설겅이와 뒷 마무리청소를 하는 등 크고 작은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 이에 주방부는 함께 자원하여 봉사할 일꾼들이 절실히 필요하

고 전했다.

새벽부터 나와 주방 봉사를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2006년도 한 해에도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맛있는 국수를 먹을 수 있게 된다

중고등부 수련회

천하보다 귀한 청소년들, 그 심령들이 뜨거운 회개와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월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충북 보은에 있는 "서당골 청소년 수련원"에서 중·고등부 겨울 연합수련회가 있었다. 이 행사에는 학생176명과 교사24명, 교역자4명, 찬양팀13명 등 총 217명이 참석하였다.

5일(목) 아침, 날씨는 추웠지만 충청도의 하늘은 맑고 공기는 신선했다. 여는 예배의 이세진전도사(중등1부)의 말씀부터 유성훈 전도사(고등부), 이재욱 목사(중등2부)의 말씀은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나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마음'을 쉽게 이해하고, 수련회의 주제인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3:16은 수련회 주제성구로 우리 청소년들은 이 구절을 마음 판에 새겼다. 그리고 첫날, 맑고 푸른 하늘을 다같이 보며 했던 별자리 찾기와, 이튿날 흥민기 목사의 익살스런 사회로 진행된 성경퀴즈 골든벨이 진행되었다. 중학교 1학년생인 '혜원' 양이 175명의 언니, 오빠들을 물리치고 고난이도의 어려운 퀴즈 25문제를 모두 맞추어 당당히 영예의 전당에 앉았다. 순간 참

석한 모두는 기립박수를 쳤다. 계속해서 활쏘기, 오재미로 핀 맞추기, 빨대불기 등 8~10가지의 재미있는 오락경기를 열어 서먹했던 새로운 친구들이 서로를 잘 알고, 친해질 수 있었다. 저녁마다 찬양팀과 함께하는 찬양 시간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와 감사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던 이기심, 욕망, 질투, 시기, 탐욕, 사악함들을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로 자복하는 어린 심령들을 주님은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 생각했습니다."

중등부 담당 이상경권사는 그 때의 감격을 이렇게 전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교사가 된 선생님들, 회사의 사무직이 끝나자마자 휴가를 내어 온 직장인 선생님들, 가족들의 식사를 위해 식탁에 대용식을 준비해 놓고 달려온 주부 선생님들 등 청소년 수련회를 위한 많은 분들의 열정과 사랑으로 수련회가 이루어 졌다고 홍목사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소개합니다



김신영 전도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부를 섬기게 된 전도사 김신영입니다. 저는 청년으로서 청년부에 새로 오신 분들을 돕는 새순 팀과 문서 선교팀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새로 오는 청년들과 함께 청년부가 활기차며, 생동감으로 더욱 하나 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신영전도사는 기독교신학대학원 목회학과 3년에 재학 중이며 사모 최영애와 딸 혜원, 아들 현현 1녀 1남을 두고 있다.

이상호 전도사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청년부를 섬기게 될 이상호 전도사입니다. 먼저 저희 가정을 주님의 교회에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귀한 신앙의 선배들과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새벽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교회 청년부에서 저는 예배인도와 훈련, 청년새벽부흥과 각종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기간 동안에 충성과 열정으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며 섬기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의교회 청년들이 구원의 감격에 못이겨 하는 청년, 예배를 회복하고 날마다 예배하는 청년,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뤄지기를 기도하는 청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청년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오늘도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그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더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상호 전도사는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재학중이며 가족으로는 사모 최은정과 딸 하연이가 있다.

다음주 4부예배



1월 22일 오후 2시에 드려질 전도 예배 “오늘”은 「하나님이 쉼을 주신다는 편지」라는 주제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인정사정 따지지 않는 하나님”이다. 흔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벌주고, 인간 편에서 뭔가 해서 거래를 해야

할 것 같은 하나님 상에 대한 편견을 풀어 주게 된다. 특별히 오늘 연극팀이 ‘아버지가 아시면...’이라는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연극을 준비하고, 특별 게스트로 남성4인조 보컬그룹 “유티”가 찬양을 한다. 유티는 이 땅의 복음사역을 위한 컨티넨탈싱어즈 출신의 남성4인조 보컬그룹(진인극, 백승찬, 송승현, 김성훈)으로 2004년에 “이에 아버지가 돌아가니라”라는 주제로 1집을 출시하여 복음적 메시지와 남성보컬의 파워풀함과 하모니가 잘 조화를 이룬 음악사역팀으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아시아 선교전략 차원으로 대만, 홍콩에 유티 라이센스 음반을 발매중이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노래하는 그룹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유티(U) 표지판이 되어주는 것이 유티의 고백이며 비전이라고 한다.



영화상영 “몬스터 주식회사”



1월 15일(주일) 오후 3시 50분 소예배실

2005 중국선교 보고 시리즈2

『빌립보서』 집중강해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격려를 전하고

‘기쁨의 편지’로 알려진『빌립보서』를 통하여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한 절 한 절 전해지면서, 그들의 진지한 순수열정과 자부심은 불세례를 받기 시작했다.

집회는 언제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찬양과 울동, 복음을 모르는 땅 끝 사람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의 기도와 예수님 닮기까지 장성한 믿음을 간구하는 통성기도에서 시작되어 서너 명의 릴레이 기도로 이어졌다. 그들의 기도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유선교사의 통역으로 소통되었다. 도착한 15일 밤 7시, 16일 새벽·오전·오후·밤 집회, 그리고 떠나오는 17일 새벽집회까지, 총 6번의 집회를 통하여 홍민기 목사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4장 23절까지 강해설교를 마쳤다. 간간이 손에 리자매의 찬양인도와 이슬람의 문화 및 종교 소개,

개, 그리고 우리의 신앙간증이 있었다. ‘기쁨의 편지’로 알려진『빌립보서』를 통하여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한 절 한 절 전해지면서, 그들의 진지한 순수열정과 자부심은 불세례를 받기 시작했다. 그들에게서 배어나오는 예수님의 향기와 열기는 우리에게 뜨거운 은혜로 전염되며 각인 되었다.

홍민기 목사가 빌립보서를 인용, 마지막 때에 중국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완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그들이 품고 있는 선교를 향한 열정에 맞불을 지켰다. 또한 신앙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안 무엇보다도 말씀 공부에 힘을 쓸 것을 강조했다. 말씀 가운데 일관된 구속사적 관점을 보는 안목을 기르고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사탄과 싸워 이길 능력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앙공동체 생활의 또 하나의 강조한 점은 서로 섬기며 사랑하기를 철저히 배우라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심장과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며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한 마음이 되어 중단 없이 유선교사를 도와 이곳의 질서를 지키며, 자비량 선교의 새로운 기업선교모형을 성공적으로 제시하라고 권면하였다. 바울이 마

게도냐를 떠날 때, 오직 빌립보 교인들만이 그를 도왔던 것처럼 이 청운도에도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 그들의 부모들 중에 현재 옥고를 치르는 등 여러 가지 갈급함과 위험을 경험하고 있지만, 능력주시는 분과 한 마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 설교했다.

집회는 감사의 기도로 마쳤다. 여러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안에 있음에 감사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 기쁨의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했다. 한 분 한 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있음과 능력주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도구로 놀라운 역사를 일구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헤어져 있는 날 동안에도 기도의 동역자로서 함께 하며, 다시 만날 때 더욱 더 많은 간증과 아름다운 관제의 제물 되기를 준비하는 기쁨의 예배자들이 이곳에 넘치기를 기도했다. 집회를 마치면서 둥글게 둘러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포옹하며 울먹이는 인사말, “짜이 켄멘, 다시 만나요, See you again”으로 헤어졌다.

이 회 숙 권사(해외선교부 중국선교팀장)